

조광래 축구 '마침표'

감독 경질...후임에 고트비·홍명보·최강희 물망

"축구협 회장단·스폰서에 기술위 휘둘렸다" 비난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질됐다. 황보관 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8일 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조광래 감독을 만나 사업을 권유했다"며 "그동안 대표팀 경기력과 운영을 볼 때 최종예선을 거쳐 본선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해 7월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조광래 감독은 1년5개월 동안 A매치 21경기에서 12승6무3패의 성적을 남기고 지휘봉을 반납하게 됐다.

아기자기한 스페인식 축구를 표방한 조 감독은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조직력을 강조한 빠른 공격축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와 선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과 어려운 전술로 선수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만화축구'를 구사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표팀은 지난달 중동 원정 경기로 열린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4·5차전에서 1승1패에 그쳐 최종예선 조지 진출 기회를 놓쳤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지난 5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조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

황보 위원장은 "지금 경기력으로는 본선 진출이 힘들 것 같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조 감독 경질 문제는 레바논 전 패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며 "조만간 기술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후일로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비디오분석관으로 '히딩크 사단'에 몸 담았던 암신 고트비 시미즈 S필스(일본) 감독과 올림픽 축구대표팀을 이끄

는 홍명보 감독, 올해 K리그 챔피언인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번 경질과 관련 대한축구 협회 기술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회장단과 메인 스폰서들의 압력에 휘둘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표팀 감독의 선임과 해임은 축구 협회 기술위원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이번 경질 문제를 놓고 아직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사퇴한 이호택 위원장(현 축구협회 부회장)의 후임으로 기술위원회를 이끌게 된 황보 위원장은 축구협회의 자금줄을 끊 메인 스폰서들의 압력에 무릎을 끊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황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술위원회가 구성되며 경질 절차에 나서려고 했지만 언론에 미리 알려졌다"며 "질 차상으로 새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지 조차 못했다.

황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술위원회가 구성되며 경질 절차에 나서려고 했지만 언론에 미리 알려졌다"며 "질 차상으로 새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지 조차 못했다.

기술위원회가 기술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협회 수뇌부와 메인 스폰서의 입김에 휘둘렸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위 독립성 문제가 새 징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않은 상황에서 분위기를 빨리 잡아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술위원회가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축구협회 회장단과 감독의 경질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도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기술위원회가 수뇌부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황보 기술위원회는 축구협회의 자금줄을 끊 메인 스폰서들의 압력에 무릎을 끊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기술위원회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협회 수뇌부와 메인 스폰서의 입김에 휘둘렸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위 독립성 문제가 새 징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조광래 "일방적 해임 통보 황당"

"조기 축구회 감독을 해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통보는 말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해임통보를 받은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은 8일 "기술위원회를 통한 공식 결정도 없이 (황보관) 기술 위원장이 윗선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감독과 황보관 기술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보 기술위원회는 조 감독에 대표팀 사령탑을 그만뒀으면 한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감독은 "정식 기술위원회 회를 열어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기술

위원회의 뜻인가"라고 물었고, 황보 기술위원회는 "부회장단의 뜻"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감독은 "나의 대표팀 운영 방식이 좋지 않다면 기술위원회를 통해 설명하고 토론하면 된다"며 "토론을 통해 나의 운영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이 나면 깨끗하게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기술위원회를 앞으로 내세워 나와 싸움을 하게 만드는 축구협회의 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술위원회가 다시 연락해서 정확한 축구협회의 뜻을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감독은 "이번 사안은 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표팀을 맡고 떠날 때도 한국 축구를 위해선 반드시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산행 안내

관광청 광고규정상 (해외 및 해상) 계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산악회 아닌 여행사 입장의 경우는 빠로 안락비입니다.

12월 10일(토)

▲예산군민실활클럽 남해금마마실축전 12월 10일(토) 7시30분 엄마체육관, 7시45분 광주시청, 8시 일자기복원관 *내선 402-4878, 010-3631-7845

▲남도산 12월 10일(토) 거창 현성금마산 7시30분 엄마체육관 *내선 402-552-2629

▲요산회 순창 청진 7시30분, 광주 12월 11일(일) 무각자 7시, 문성 7시45분, 광주 7시45분, 남도산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광주 12월 11일(일) 7시30분 엄마체육관 *내선 402-4433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가하산 12월 10일(토) 7시30분 엄마체육관 *내선 402-7980

▲신체학습센터 12월 11일(일) 7시30분 엄마체육관 *내선 402-8591-0091

▲광주도요산의회 경진 만박산 12월 10일(토) 8시 일자체육관, 광주역, 비엔날레주차장 경우 *내선 402-3608-9267, 010-3642-2849

임야·전·답습 1,300평

2억5천만원 (조정가능)

■마루잇산, 200m 전방 (바다)

■자동차 진입도로, 전기시설있음

■위 치 : 고흥군 과역면 소재

주인직통 : 010-6720-1885

12월 11일(일)

▲광주거버이신의회 지리산 현관봉 (중산리) 12월 11일(일) 6시45분 엄마체육관 출발(40분 경기장경문, 7~10분 비엔날레주차장) *내선 402-552-2629

▲광주풀래길동호회 삼남미 절을 구간, 송년회 12월 11일(일) 7시30분 엄마체육관(7시50분, 8시 10분) *내선 402-5506-0999

11일(일) 7시 엄마체육관 출발(7:15 봉제백화점, 30분 문제 청소년수련원, 7:50 비엔날레주차장)으로, 8:00 문예회관(8시) *내선 402-562-3232

▲광주사자신의회 이양 응암산(산행군) 12월 11일(일) 7시30분 남도산 909m *내선 402-562-3232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2-552-2629

▲제3000만원 경남 해미 헬스파크 12월 11일(일) 7시30분(11일) *내선 40